**마1035 Note**

**◆Cross check : 미0706, 눅1253**

미0706. 이는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치욕을 주며 (나벨:시들다,떨어지다,실패하다, 실신하다,어리석다,약한,경멸하다,창피주다,경히 여기다,어리석게 행동하다,가치없게 만들다), 딸이 그 어머니를 거슬러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일어남이라. 사람의 적들은 그 자신의 집의 사람들이니라.

Ω눅1251. 내가 땅에 평화[에이레네:에이로(결합하다,묶다)에서 유래,히브리어 솰롬 (안녕,평안,번창)에 상응,평화,번영,평강,하나가 됨,고요,안식,다시 하나가 되다/호크마 주석: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종종 뜻한다]를 주기 위해 왔다고 너희가 추정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오히려 분리[디아메리스모스: (견해와 실행에) 분열,분리]이니라.

눅1252. 이는 지금부터 한 집 안에 나뉘어진(디아메리조:철저하게 나누어 있다,쪼개진, 나누다,구분하다) 다섯이 있음이니, 둘을 거스르는 셋과, 셋을 거스르는 둘이라.

눅1253. 아버지가 아들을 거슬러, 아들이 아버지를 거슬러 나뉘느니라. 어머니가 딸을 거슬러, 딸이 어머니를 거슬러 나뉘느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거슬러,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거슬러 나뉘느니라.